

박춘섭 청장, 조지아 조달청장과 MOU



박춘섭 조달청장은 4일(현지시간) 레반 레즈매즈 조지아 조달청장과 공공조달 상호 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지아의 전자조달 고도화지원과 조달제도 운영 전수를 위한 교류 및 상호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조달기관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청장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 조달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류재선 회장, 파페카 참석 말련으로 출국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10일 '2017년도 아-태 전기공사협회 연합회(파페카) 회의' 참가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

류 회장은 파페카 컨퍼런스와 이사회, IGEM 2017 박람회 투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구자열 회장, 'LS T-Fair 2017' 개최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최근 주요 계열사들의 연구개발 성과공유회인 'LS T-Fair 2017'을 안양 LST타워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구자열 회장, 구자열 LS전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계열사

CEO,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연구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드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LS전선, LS산전 등 8개 사의 우수 과제 발표 및 시상식과 함께, 연구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어울림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Interview



김희성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재무담당 상무
(우먼스 카운슬 제4대 회장)

1990년대 IBM은 시장지배력의 한계에 부딪혀 외부인사인 루 거스트너(Lou Gerstner)를 영입했다. 그가 내세운 전략은 바로 다양성(Diversity).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성공을 거뒀다. 이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양성 전략을 채택해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에선 처음으로 오티스가 '동등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모토로 다양성 존중문화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우먼스 카운슬'이 있다. 제4대 회장인 김희성 오티스 재무담당 상무를 만나 '다양성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김희성 상무는 "우리나라 기업문화에선 특히 세대와 성별간 불평등이 문제되고 있다. 아직까지 여성을 사무보조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고, 동료로 인정하며 함께 일해 온 경험이 길지 않다"며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획일화된 환경에서 창조와 혁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성 존중은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사장 조익서)는 특히 성별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먼스 카운슬'이란 조직을 만들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오티스의 전체 직원은 1549명으

한 활동을 통해 우먼스 카운슬의 조직력은 더욱 탄탄해지고, 결속력도 강해졌다. 김 상무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영진과 여성 인재들간의 열린 토론회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진했고,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 워크샵, 외부초청 강의 등을 열었다"며 "또 오티스의 경영가치 중 하나인 '안전'을 바탕으로 여성 리더십을 지역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안전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주최하는 등 직원들간 화합과 리더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낸 벽화그리기 활동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또 우먼스 카운슬은 리더십,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워크 라이프 등 4개 분야의 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상무는 "우먼스 카운슬은 일반적인 여사우회와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며 "여성의 권익 신장보다는 회사 성장에 여성이 어떻게 기여하고 같이 성장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성 활동이야말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팽배합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죠. 성별간 차별이 없고,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본다던 다양성 기반의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고, 결국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먼스 카운슬의 최종 목표는 이 같은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석희 기자 xxi@

“세대간·성별간 다양성 존중은 지속적 기업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

‘우먼스 카운슬’ 조직 구축, 양성평등 문화 확산 주력

“서구에서 시작된 다양성 존중문화란 인종, 세대, 성별간 차별을 금지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 성소수자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과 세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는 글로벌기업에선 점차 다양성이 창조와 혁신의 필요조건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죠. 오티스의 모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도 올해 이 같은 다양성 전략을 채용해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

로 이중 105명(7%)이 여성이다. 김 상무는 “오티스 내 여성 리더십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게 우먼스 카운슬 활동”이라며 “보다 많은 여성 인재들이 오티스와 함께 성장하고,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개 분과 15명이 우먼스 카운슬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남자도 2명 포함돼 있다. 2013년 발족한 뒤 4기를 거치면서 다양

“전력설비 부정적 이미지 개선기대”

‘새빛누리’ 전기 대표적 기능인 ‘빛과 에너지’ 표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열린 국제 친환경 송전철탑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박수신 한국전력공사 과장은 “환경친화C/H철탑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디자인부터 모델 선정까지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된 작품이다”며 “전력설비는 혐오스럽다는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개발 목적과 동기가 이번 수상 의 원동력이 된 듯 하다”고 말했다.

“새빛누리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배흘림 기둥’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어요. 부드러운 곡선의미를 강조했죠. 특히 일반인들에게 각인된 기존 철탑 형상에서 암(arm)을 배제해 심플하고 모던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을 적용해 전력시설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로서의 기능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박 과장은 “새빛누리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이다”며 “새빛누리가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력시설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미관을 고려한 송전철탑이 확대되려면 철탑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담당자 모두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야 할 겁니다. 또 트렌드에 맞는 의식 변화도 뒤따라야 하겠죠. 지금처럼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박 과장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빛누리가 전력설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개발해 IEEE e&T에 발표할 예정인 ‘지능형 자율주행감시장치’ 또한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박수신
한국전력공사 과장



김병일 기자 kube@

KyongBo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SO 9001 인증
지시전기계기, 계기발전장치, 보조계전기, Transducer

KS 표시허가
지시전기계기(KSC66 8005), 교류-직류변환기(KSC 1706)
계기발전장치(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KSC 1706)
계기발전장치(전력수용용) (KSC 1707)

원자력(KEPIC-EN) 자격 인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품

CE 마킹

전력용변환기

지시전기계기

계기발전장치(MCF)

계기용변환기

다지일미터

품질

고객만족

신제품개발

계기용변류기

집중표시차어장치(MCM300)

다지일보송계전기

누전경보기/누전계전기

京東電機株式會社

http://www.kyongbo.co.kr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9
Tel. 465-1133 Fax. 465-1333

분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가길 5
Tel. 465-1138 Fax. 497-2240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실장 박건수
 - ◆과장급 전보 ▲산업재난담당관 최석진 ▲산업정책과장 김원기 ▲산업혁신과장 최연우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김중주 ▲입지총괄과장 서가람 ▲산업기반총괄과장 황수성 ▲전자부품과장 박영삼 ▲섬유세라믹과장 제경희 ▲기계로봇과장 박동일 ▲전자전기과장 이진광 ▲유동물류과장 서기웅 ▲신재생에너지과장 전병근 ▲원전산업정책과장 정종영 ▲원전산업관리과장 유성우 ▲원전수출진흥과장 김진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 이경호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양광석 ▲다자통상협력과장 양기욱 ▲미주통상과장 장성길 ▲구주통상과장 심진수 ▲아시아유럽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김

- 미에 ▲아주통상과장 송요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박찬기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윤영진 ▲해외투자과장 송현주 ▲무역규제정책과장 최형기 ▲국제표준과장 정기원 ▲제품시장관리과장 박재훈 ▲시험인증정책과장 전민영 ▲인증산업진흥과장 한상미
- 조달청**
-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 백호성 ▲구매사업국 소품물구매과장 김용환 ▲시설사업국 토목환경과장 장원수 ▲경남지방조달청장 최진 ▲과장급 직위 승진 ▲조달품질원 품질점검팀장 조진석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김공진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신동준